

당대의 名畵로 꾸민 표지 전시회

여성동아 창간 90주년

‘여성동아’가 올해 창간 9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해 오는 11월 3~12일 서울 성동구 LES601성수에서 ‘여성동아 90주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33년 1월호부터 1981년 3월호까지 이어진 표지화를 재조명한다. 창간호를 그린 청전 이상범,

1933년 ‘신가정’으로 창간...1967년 ‘여성동아’로 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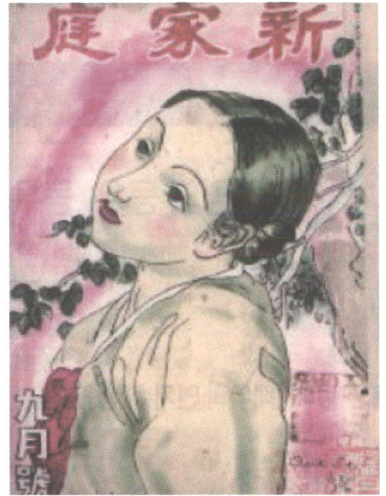
해방 이후 격동기를 그려낸 이쾌대,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천경자, 김기창, 문학진 화백 역시 ‘여성동아’의 한 폭을 장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민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여성동아 표지화 50여 점이 공개된다. 또 테이프 아티스트 조윤진과 브릭 아티스트 김학진, 김승유가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1960~1980년대 초 한국 화단의 최신 화풍을 적극 반영해왔던 정신을 2023년에 재현하는 것이다. 90년간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명해 온

‘여성동아’ 아카이빙 자료도 만날 수 있다.

‘여성동아’는 1933년 1월 ‘신가정’이란 이름으로 창간했다.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은 당시 창간사를 통해 “혹 세상이 가정주부의 지위와 그 사회적 가치를 잘못 인식하여 남자에 대한 한 개의 종속적 존재로만 말하는 이가 있으나 그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라며 “어찌 주부의 지위와 그 가치를 예사로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

고 밝혔다. 동아일보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 이후 1936년 9월 일제의 탄압으로 폐간된 ‘신가정’은 1967년 11월 ‘여성동아’로 복간해 90주년을 맞았다. 동아일보의 문화주의 정신을 이어 받아 ‘여성동아 장편 소설 공모전’을 1968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1970년 ‘나목’으로 등단한 박완서 작가가 대표적이다.

문영훈 (여성동아팀 기자)



이쾌대. 1936년 9월호



천경자. 1971년 6월호(왼쪽), 1974년 2월호.